

7월 19일(화)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카비아(Kabia,가명)자매는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쫓겨났습니다. 교회의 임시거처와 친척집을 오가며 신앙생활을 이어오던 카비아는 가문과 가족에게 치욕을 안겨줬다며 며느리에게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들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며, 현재 그녀를 보호해줄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카비아 자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20일(수) 중앙아시아 CENTRAL ASIA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아킴(Akim,가명)형제와 쌍둥이 여동생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신실한 이슬람 신자였고, 자녀들의 기독교 개종 사실을 안 뒤로 자녀들을 폭행하며, 이슬람 경전 코란을 강제로 가르쳤습니다. 아킴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존중 받고자 했지만, 아버지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고 결국 동생들과 함께 집을 나와 다른 지역 교회 공동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아킴의 여동생들의 미래와 안전, 그리고 아킴 형제의 건강 회복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7월 21일(목) 중앙아시아 CENTRAL ASIA

중앙아시아 청소년 사역자 라심(Rasim,가명)형제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폭행을 당했던 일을 떠올리며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청소년들을 의심하고 사역에 두려움을 느끼기 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박해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사역이 자신의 소명이며,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졌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라심 형제의 사역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22일(금) 알제리 ALGERIA

지난 몇 년간 수 많은 알제리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소송을 걸며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헌법제정을 통한 기독교를 향한 박해와 탄압 앞에 교회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알제리 정부의 압박 해를 거듭할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와 용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들이 폐쇄되면서 갈 곳을 잃은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신앙을 굳게 지켜낼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잘 활용하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며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23일(토) 인도네시아 INDONESIA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어린이 날입니다. 공립학교를 다니는 여자 어린이들은 의무적으로 히잡(Hijab: 무슬림 여성들의 얼굴과 머리를 덮는 천)을 착용해야 합니다. 기독교인 소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 어

린이들은 사립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립학교를 다니며 이슬람적인 학교 방침을 따라야 만 합니다. 또한 기독교인은 무슬림 학생들의 괴롭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 날을 맞는 기독교 어린이들이 평화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서로를 의지하며 차별과 괴롭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24일(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ISRAEL&PALESTINE

3년 가까이 진행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교회들의 여름 행사들이 올 여름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다양한 형태의 여름캠프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진행되는 여름 캠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큰 기대를 품고 있는 만큼, 성령하나님께서 캠프를 주관해 주시고 청년과 청소년, 장년층 등 모든 세대들이 함께 하나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훈련될 수 있도록, 또한 캠프 준비와 진행 간에 안전 사고가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7월 25일(월) 시리아 SYRIA

사미르(가명)와 무니르(가명)는 자신들이 소유한 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나갔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한 현지인은 “베두인과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기 위해 벌인 사건으로,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에 소유한 땅을 버리고 떠나도록 만들기 위한 기독교인 추방책의 일환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미르와 무니르 형제 가정에 성령의 위로가 있도록, 정부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26일(화) 시리아 SYRIA

11년간의 전쟁으로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 충격에 의한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시리아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전쟁의 폭력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성인과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빛이 시리아 땅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도록 기독교인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27일(수) 이라크 IRAQ

오픈도어는 2016년부터 시리아-이라크가 위치한 중동지역의 희망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중동지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 후원과 기도로 후원하며, 중동의 현실을 알리며 그들을 격려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의 몰락과 종교적 박해를 겪으며 희망을 잃은 중동지역 기독교인들이 전세계 교회의 지원과 기도로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28일(목) 레바논 LEBANON

레바논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한 기회의 땅입니다. 특히 레바논 난민 캠프는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지역 라디오와 TV방송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난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현장 사역자들과 현지파트너들이 지역교회와 함께 기독교 난민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29일(금)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탈레반이 집권한 후, 파라(Farah,가명)자매는 남편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파라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을 지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남편이 죽는 꿈을 꾸며, 남편없이 혼자 살아갈 삶에 대해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파라 자매의 마음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파라 자매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30일(토)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어린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를 받더라도 모든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균 3~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학교가 모든 아이들을 수용할 능력이 안되고, 비용 또한 엄청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아이들은 거리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의료체계와 교육시스템의 회복을 위해 선진국과 교회들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31일(일)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픈도어 현장 사역팀과 현지 파트너들은 약 5,000여 명의 난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중앙아시아 다른 나라 안에서도 아프간 난민 지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가 돌보고 있는 난민들의 대부분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들, 탈레반 정권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탈출한 기독교 난민들, 그리고 현지 기독교인을 제외하고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가장 취약한 난민들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슬림 난민들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의 아프간 난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 기도월력을 신청하세요! 기도회에서 나누시도록 원하시는 부수대로 보내드립니다
- 주간박해뉴스/기도제목을 신청하세요! 매주 개인카톡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채널'을 검색/추가해주세요.

다양한 박해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T 02-596-3171 F 02-594-3171 M 010-7548-3171
E odsk@opendoors.or.kr H www.opendoors.or.kr

“불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 요한계시록 3:8 -



Open 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7월 1일(금) 북한 NORTH KOREA

소망(가명)자매와 같은 북한 비밀신자들은 북한 외부 기독교인들의 지원에 의존하며 육체적 영적 굶주림의 삶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소망자매가 처음 오픈도어 현지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감사함을 주체하지 못했고 조심스럽게 감사편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녀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저희 가족과 교회 공동체원들이 국경일 하얀 쌀밥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도움을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비밀교회 신자들에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용기와 진리의 능력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2일(토) 북한 NORTH KOREA

국경지역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사역자와 현지파트너들은 안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나라가 북한으로 확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가옥사역과 성경배달사역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현지 협력 사역자 수잔(가명)은 사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독교 사역자들에 대한 감시로 상황이 더욱 민감해지고 있는 현장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현지 사역자들의 가족의 안전과 신분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7월 3일(일) 북한 NORTH KOREA

북한 주민들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여러 목적에 따라 제3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독교인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기족(가명)형제는 잠시 제3국에 입국했을 때 오픈도어 현장 사역자를 만나서 안전가옥사역을 통해 현재 복음을 접하고 훈련 받고 있는 새신자입니다. 안전가옥사역이 감시와 통제에 의해 막히지 않고 북한 교회를 세우고 튼튼히 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 도구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역자들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7월 4일(월) 브루나이 BRUNEI

2019년부터 브루나이 영화산업은 이슬람 영화 부분인 브루나이 필름 블리츠(Brunei Film Blitz)라는 새로운 영역을 선보였습니다. 유명 이슬람 대학의 학생들을 비롯해 정부기관 관계자, 영화제작자 및 영화산업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슬람 영화 영역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열린 올해 심포지엄은 학술적 조사를 통한 브루나이 이슬람 영화 산업의 정체성 확립과 산업 확장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인식확산이 브루나이 기독교 박해와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5일(화) 브루나이 BRUNEI

브루나이 종교부는 브루나이 내에 이슬람 회당 건축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이슬람 회당 건축을 위한 기금 마련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3개의 회당이 건축되었습니다.

니다. 현재 총 건축비 약 44억원 규모의 회당이 건축되고 있고 정부의 이슬람 확산 정책으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박해와 차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독교 공동체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예상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차별 확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6일(수) 몰디브 MALDIVES

몰디브 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범죄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사회 활동 재활 지원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급진적 이슬람의 사상의 확산을 막아서 교도소 내 외에서의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한 범죄를 막는데 있습니다. 기본 생활 정보교육, 기술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줄어들고 몰디브 사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7일(목) 중앙아시아 CENTRAL ASIA

중앙아시아의 굴미라(Gulmira)자매는 무슬림 남편과 결혼 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굴미라와 남편은 아이를 갖기 위해 3년간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성경을 읽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 친척들에게 밝힌 뒤, 친척들과 남편은 그녀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임신에 실패한다고 말하며, 남편은 굴미라 자매를 떠났습니다. 굴미라 자매는 친척들로부터 여전히 압력을 받으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굴미라 자매를 지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8일(금) 말레이시아 MALAYSIA

무국적자로서 국가 주민등록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국제결혼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잘못된 이교적 종교 정체성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국적의 결과는 보건복지 및 교육 시스템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무국적자들이 사회 제도 안에서 올바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무국적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9일(토) 방글라데시 BANGLADESH

방글라데시의 이슬람 교도 인구는 1억 5천만 명이 넘습니다. 방글라데시 이슬람교도들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알라(Allah)신에게 제물로 바쳤다고 믿으며 지금까지도 이를 기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셔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10일(일) 방글라데시 BANGLADESH

7월에는 1차 성인 문맹 학교 보충강의 후, 2차 문맹학교가 실시됩니다. 성경책을 읽기와 함께 진행될 2차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고 즐기며 성경지식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문맹학교에 참여하는 참여자들과 교사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배워가며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모두가 성실하게 1년 과정을 마치고 효과적인 교육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단순한 배움이 아닌, 배움을 통해 타인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11일(월) 인도네시아 INDONESIA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인구 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이슬람의 이드-울-아자(Eid ul-Azha)축제 동안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알라(Allah)에 대한 순결한 사랑의 상징으로 희생 제물로 동물을 도살하여 바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알라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12일(화) 스리랑카 SRI LANKA

샤니(가명)자매와 여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3년 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친척들은 신실한 힌두교였습니다. 샤니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1년 전부터 아버지가 기독교신앙을 강하게 반대하며, 교회에 가려거든 집을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샤니는 예수님도 아버지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샤니와 여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몰래 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있습니다. 샤니와 여동생과 어머니가 신앙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샤니 자매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13일(수) 남부 필리핀 SOUTHERN PHILIPPINES

MBB(Muslim Background Believer)를 위한 SSTS(Standing Strong Through the Storm)트레이닝은 박해와 위협에 대한 성경적이고 현실적인 이해를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SSTS트레이닝은 남부 지역 2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며, 외부 인원 20여명을 포함하여 총 70여명의 기독교인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SSTS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많은 참석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SSTS 참석자들의 이동과 진행 간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7월 14일(목) 남부 필리핀 SOUTHERN PHILIPPINES

지난해 SSTS트레이닝에 참여했던 마리아م(Mariam,가명)은 SSTS를 참여하면서 자신과 같이 신앙의 싸움과 현실적 도움을 찾는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어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리아ם은 SSTS

후에 가족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일부 형제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마리아ם과 같은 MBB 기독교인들이 SSTS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고 복음 전도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15일(금) 남부 필리핀 SOUTHERN PHILIPPINES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기간 연기되었던 MBB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가 이번 달에 남부 필리핀에서 열립니다. 캠프를 준비하는 많은 진행요원들과 자원봉사자들, 총괄책임자 및 강사와 참석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난 캠프에 참석한 많은 청소년들은 같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고 고백합니다. 참석자들 및 모든 진행요원들의 건강과 상황들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도록, 캠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16일(토)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한 지역 교회가 마을 내 기숙학교에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선물에 성경이야기 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들은 기독교 포교활동을 한다며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협박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차량을 훼손하고 가축2마리를 독살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기숙학교에도 기독교인들과 협력하지 말라며 협박하였습니다. 이 지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기숙학교 교사/직원/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17일(일)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키리마야큰(Kirimayakn,가명)자매는 1년 넘게 예수님을 믿어 오면서 가족과 이웃들의 박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의 기독교신앙을 알고 늦은 밤에 그녀와 그녀의 어린 딸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마을 카페에서 청소와 설거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속이며 그녀에게 접근한 동료는 다른 동료들에게 키리마야큰의 신앙을 공개하며 그녀를 박해하였습니다. 결국 직장을 그만뒀야만 했던 그녀는 다른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앞 날에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 18일(월)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케림(Kerim,가명)형제는 동생이 죽었을 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마을 내에 동생 묘지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마을의 이슬람 지도자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허락하겠다고 회유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마을에서 150킬로미터 거리의 기독교 공동묘지에 동생을 안장 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고, 이슬람 지도자는 케림에게 마을을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케림 형제의 미래와 안전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그와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